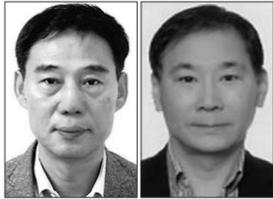


# 남다른 열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

박봉수 웨미리식품 전주공장장, 모범기업인 대통령 표창  
이용제 천일제지 대표이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표창



박봉수 이용제

지역 모범 기업인들이 제46회 상공의 날을 맞아 대통령표창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표창을 수상한다. 전주상공회의소에 따르면 20일 코엑스 제46회 상공의 날 기념식에서 남다른 열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서 온 박봉수 웨미리식품(주)전주공장장과 이용제 천일제지(주) 대표이사가 각각 대통령 표창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표창을 수상한다고 밝혔다.

대통령 표창을 수상한 웨미리식품(주)전주공장장 박봉수 공장장(55)은 28년간 재직하며 쌓은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가족은 고객,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최우선'이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건강하고 올바른 먹거리를 만들어 전주공장의 성장

과 발전을 주도 하는데 크게 공헌을 했다. 또한, 가족이 먹고 즐기는 제품, 고객에게 안전하고 유익한 제품을 적극 개발하는데 힘써 온 결과 국내 최대 규모의 비스킷 전문 공장장으로 성장케 하는 등 우리나라 식품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했으며, 노사 상생과 협력을 통한 고용환경 개선으로 25년간 무분규사업장을 유지하여 산업평화모범사업장으로 3회나 선정되는데 기여했다.

이용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어린이 체험미술관을 운영하는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크게 기여한 점을 인정받았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표창을 수상한 천일제지(주) 이용제 대표이사

(58)는 제지산업 분야에만 주력해온 전문기업으로 지관 및 합지 원지 생산분야 국내 1위 기업으로 성장하는데 헌신 했으며, 고강도의 지관원지 개발과 지속적인 품질향상으로 수출시장 개척은 물론 출판 산업의 포지셔닝과 문구류의 하드보드 등 판지제조 전문분야로 성장 발전시키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또한, 고용안정을 위해 계약직 없이 정규직으로 운영해 왔으며, 2010년부터 고령자 고용촉진을 위해 정

년이후 재고용과 자치단체와 협약을 맺고 청년인턴 전원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등 취약 근로자 보호를 위해 3대 기초고용질서를 준수, 착한 일자리 업체로 인정을 받았다. 이선홍 전주상공회의소 회장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신 공로로 수상하신 기업인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며, "금번 상공의 날을 맞아 우리지역 기업인들이 존경받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사기 진작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상공의 날은 우리나라 상공업의 진흥을 촉진하기 위해 지정된 법정 기념일로 상공의 날 표창은 국가 경제의 성장과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치하하기 위해 제정 됐으며 기념식은 대한상공회의소가 주관해 매년 3월 셋째주 수요일에 열린다. /김영태 기자

## 전북농협, 'NH농협카드 대상' 시상식서 3명 수상

NH농협은행 전북본부는 2018년도 NH농협카드 대상 전국 시상식에서 도내 직원 3명이 개인 부문 동상, 신인상을 받았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시상식에서 합열지점 황성곤 과장과 정음시지부 이문행 계장은 동상, 삼천동지점 강민구 계장은 신인상의 영광을 안았다.

특히 이문행 계장은 2016년 이후 3년 연속 수상의 쾌거를 이뤘다. 김장근 전북본부장은 "매년 전북지

역에서 우수 마케팅 리더를 배출하게 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직원의 역량과 직무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수상자들이 마케팅 리더로서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NH농협카드 대상은 1996년 카드 세일즈 왕 제도를 시작으로 매년 카드 사업 성장에 이바지한 직원들의 공로를 인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영태 기자

## '꽃샘추위 피해 이스타항공 타고 동남아로'

7개 동남아 노선 특가 이벤트

이스타항공이 여행 독려 이벤트 '이불 밖은 안전해 시즌 1 꽃샘추위 피해 동남아' 특가 판매를 3월 19일부터 3월 25일까지 일주일간 진행한다

특가 이벤트는 꽃샘추위를 피해 대만, 홍콩, 방콕, 푸꾸옥 등 7개 동남아 노선에 대해 탑승기간 3월 20일부터 4월 30일까지 항공편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편도총액인원 기준 최저가 △김포-타이베이(송산) 84,900원 △인천-방콕 99,900원 등 특가 구매가 가능하다. 아울러, 이벤트 기간 동안 댓글 퀴즈이벤트를 함께 진행한다.

이벤트 페이지 하단에 오는 25일 오후 예정인 '여행 독려 이벤트 시즌 2' 노선을 댓글로 맞춘 고객들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커피 교환권을 증정한다.

이스타항공 관계자는 "봄 시즌에 맞춰 항공 여행을 독려하기 위해 두 차례에 걸친 특가 이벤트를 진행하게



했다"며, "3, 4월 꽃샘추위에 맞서 이번 시즌1 특가이벤트를 통해 따뜻한 동남아 봄 여행을 계획해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이스타항공 홈페이지(www.eastarjet.com) 및 모바일에서 예약, 문의하면된다. /김영태 기자

## 앞으로 LPG 차량, 일반인도 구매 가능해져

정부, 액화석유가스 등 미세먼지 관련 3법 의결

앞으로 일반인도 액화석유가스(LPG) 차량을 구매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미세먼지 등 배출량 정보의 분석과 관리를 전담할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의 설치·운영규정이 강화된다. 특히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가 사회제안으로 지정된다.

정부는 19일 국무회의를 열고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등 국회에서 이송된 '미세먼지 관련 3개 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에 의결된 법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으로

LPG의 자동차 연료 사용제한이 폐지된다. 소형(1600cc 미만)·중형(1600~2000cc미만)·대형(2000cc이상) 승용자동차 등의 LPG연료 사용이 전면 허용된다.

이로써 일반인도 제한 없이 LPG 차량을 구매할 수 있게 돼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적은 LPG 차량 보급이 확산될 전망이다.

이날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미세먼지 등 배출량 정보의 분석과 관리를 전담할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의

설치·운영규정을 강화하고 정책영향 분석 기능을 추가했다.

정부출연기관, 대학교 등 조사·연구기관을 '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로 지정·지원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됐다. 이에 국공립 기관뿐 아니라 민간 기관의 전문역량을 활용해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피해 예방·관리 등 시급한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된다.

더욱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의 의결로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사회제안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된다. 앞으로 미세먼지 피해를 완화하기 위해 재난대응체계에 따른 예

방·대비 등의 조치가 가능해진다.

환경부 주관으로 단계별 미세먼지 위기관리 매뉴얼을 마련하는 한편 대규모 재난 수준의 미세먼지 발생 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해 행정·재정적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된다.

이번에 의결된 3개 개정법은 다음 주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학교보건법 개정안 등 나머지 5개 미세먼지 법안도 정부로 이송되면 곧바로 의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에 의결된 개정법의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며 "미세먼지 저감과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정책효과를 조속히 체감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설명했다. /뉴스시

## 금융당국, "가맹점·카드사 수수료 협상 위법 발견시 엄중조치"

협상불발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진행상황 모니터링

금융당국은 19일 현대·기아차의 카다가맹점 계약해지까지 초래했던 대형가맹점과 카드사 간 신용카드 수수료 협상과 관련해 "후추 카드수수료 적용실태 점검 등을 통해 위법사항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엄중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창호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이날 오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이같이 말했다.

윤 국장은 "기본적으로 신용카드가맹점과 카드사간 수수료를 협상에 금융당국이 직접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라면서도 다만 협상불발로 카드결제 거부 등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당국은 협상 진행상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는 한편 원만한 해결을 위한 여건 조성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상 적격비용(원가) 기반의 수수료율 산정원칙과 수익자부담 원칙의 틀 내에서 자율적 합의를 통한 해결이 원칙이지만 카드 수수료 협상을 모니터링하는 과정에서 카드사나 대형가맹점의 위법행위가 발견되는 경우 조치하겠다는 게 금융당국의 입장이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여전법은 매출액 3억원 이상 대형가맹점의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해 부당하게 낮은 수

수료율을 요구할 경우 징역 1년 또는 벌금 1000만원을 부과할 수 있으며 보상금 등의 부당한 대가를 요구하거나 수수료면 징역 5년 또는 벌금 3000만원까지 부과된다.

카드사에 대해서는 대형가맹점에 부당한 보상금을 제공하면 징역 5년 또는 벌금 3000만원의 처벌이 내려질 수 있다.

카드사가 적격비용 원칙을 준수하지 않거나 수수료율을 부당하게 차별할 경우 금융위는 카드사에 조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위반시 업무정지나 과징금 1억원의 제재를 가할 수 있다.

/뉴스시

## "지역건설경기 활성화 위해 불공정 거래 근절"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북도회,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간담회 가져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북도회(회장 김태경)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해 지난 18일 전북도와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간담회에서 김태경 도회장은 "새만금사업 지역기업 우대기준 고시 개정, 대형건설사의 컨소시엄 확대 등 도내에서 발주되는 대형사업에 지역업체의 참여 확대를 위해 노력해 주신 전라북도에 감사하다"며, "침체된 지역건설경기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공사 참여 확대와 적정공사비 확보, 불공정 하도급 거래 근절 등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전북도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이희승 건설지원팀장은 "전북도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지역건설산업 수주단 TF팀, 홍보 세일즈단"을 구성, 도내 대형 공사현장 뿐만 아니라 유관기관, 대기업 본사 방문 등을 통해 지역업체 하도급 수수료율을 높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영태 기자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